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신중히 판단해야”

전주시, 사업 절차·관련 내용 숙지 당부...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위반 행위 신속 조치 추진

전주시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현수막 및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신고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의 진행 절차와 계약, 탈퇴 등에 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 대응에 나서는 한편, 시민들이 이로 인한 피해 및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스스로 사업 주체가 돼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비

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확보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또는 무산 가능성도 존재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행정기관에 모집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조합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주택 건설 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담초 사업 규모와 세대 수, 평형 등이 변경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지역주택조합은 착공에 들어가 주택을 건설하고, 사용권사를 거쳐 조합원들이 입주하게 된다.

이외에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조합가입계약 설명 확인서를 작성해 조합의 기본사항을 재확인해야 하며, 청약 철회의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며 남부한 일체의 금액 반환이 가능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절차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사업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진행단계별 토지 확보가

지연될 경우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 등이 상승할 수 있다.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사업계획은 건설예정 계획이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규모는 조합설립 인가 후 각 종 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외에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조합가입계약 설명 확인서를 작성해 조합의 기본사항을 재확인해야 하며, 청약 철회의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며 남부한 일체의 금액 반환이 가능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절차 및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사업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기본과정 교육을 수료



전주시는 지난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초록정원사 양성교육 수료식을 열고, 기본과정 33명과 역량강화 과정 27명 등 총 60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전주 ‘초록정원사’ 추가 탄생

시, 양성교육 수료식 갖고 60명에게 수료증 전달

정원도시 전주를 함께 가꾸어나갈 초록정원사들이 추가 탄생했다.

전주시는 지난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초록정원사 양성교육 수료식을 열고, 기본과정 33명과 역량강화 과정 27명 등 총 60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먼저 초록정원사 기본과정은 지난 3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진행했으며, 정원 디자인과 식물의 번식에 대해 알아보는 등 36시간의 이론수업과 공공정원 및 개인 정원을 방문하는 등의 현장 견학 32시간 실습수업을 포함한 총 68시간 동안 진행했다.

또한 앞서 기본과정 교육을 수료

한 초록정원사 대상으로 진행한 역량강화 과정의 경우 지난 3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진행했다.

이들은 정원 식재 설계 실무 위주의 33시간 이론수업과 정원조성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18시간의 실습 교육을 포함한 총 51시간의 교육을 통해 초록정원사로서 역량을 키웠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초록정원사들은 앞으로 아름다운 정원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며 정원문화를 전파하고 정원도시 전주로 확립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도시환경 변화 반영 도시계획 규제 완화 추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주시가 도시환경 변화에 발맞춰 도시계획 조례의 규제사항 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주시에 따르면 자연취락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내 건축물 용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도시환경 변화와 미래지향적 개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공동주택 허용 △시

가지경관지구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도료류 판매소) 허용 및 건축가능 시설기준 정비 △주거지구 내 공공업무시설에서의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허용 △연구개발특구에서 건축물·용적률 완화 △전통시장에서의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건축물·용적률 완화 등이다.

먼저 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개발 허용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주택단지에 관한 계획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녹지지역에 밀집된 취락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해서도 건축물 용도 제한 기준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해당 지구는 폭 25m 이상 대로변에 지정돼 있으며 시는 경관 저해요소가 적은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등 일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건축가능시설의 예외 적용을 명확히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공공업무시설 부지에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미래의 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용적률 완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는 향후 기반 시설이 넓고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관력이 저하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대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은 70%까지, 용적률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건강한 영양섭취 돕기 나서

전주시가 학교급식을 지원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영양섭취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정혜선 센터장, 이하 전주시 꿈드림)는 지난 달 30일 가정의 달을 맞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2025년 제1차 꿈드림 딜리버리’ 사업을 전개했다.

전주시 꿈드림은 청소년 가정 100가구에 밀키트 꾸러미를 전달했다. 밀키트는 ‘함께라 행복하담’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간편식 전문플랫폼인 ‘왕잇’과 협력해 제공됐으며, 유린기와 치킨텐더, 닭한마리 칼국수, 순살찜닭 2인분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집에서 손쉽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밀키트를 지원받은 청소년들은 자신이 만든 음식을 가족, 친구들과 나누며, 그 과정에서 느낀 감동을 사진으로 담아 공유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민과 함께 만든 ‘전주단오’ 성료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절기 행사인 ‘2025 전주단오’가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주시는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2025 전주단오’ 행사가 전주단오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성대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5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맞이해 열린 2025 전주단오는 행사 첫날 시민의 안녕과 한 해의 풍년을 기

원하는 풍년기원과 길놀이로 막을 열었다.

또한 단오장사 씨름대회와 참조머리감기 등 시민과 관광객이 단오의 전통 세시풍속을 보고 체험하며 단오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올해 전주단오 체험마당에서는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풍성한 공연들이 준비돼 단오의 낮과 밤을 열정적으로 물들였다.

회의를 신규 위촉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참석한 위원들이 전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상반기 회의 가져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지역 평생교육 발전과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는 의장인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전주시역 평생교육 기관·단체장 등 평생교육 관련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는 신규 위촉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참석한 위원들이 전

주시 평생학습관장으로부터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관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과 향후 추진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주요 논의 사항은 △제19회 평생학습 한마당 추진 방향 △제9회 전주시 인문주간 운영 방향 등이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논의된 의견들을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